



무등산 첫 눈꽃 장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발효된 지난날 30일 오전 무등산 정상일대에 전일부터 내린 눈으로 나뭇가지마다 하얀 눈꽃을 피워 장관을 이뤘고, 멀리 광주시내가 보이고 있다. /김태규 기자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지역 경제 ‘직격탄’

레미콘 생산량 전무…건설현장 울스톱

금타 “제품 소량 출하 중…최대 한 달”

기아, 완성차 개별택송·적치공간 확보

정부-화물연대 ‘강 대 강’ 대치 장기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지역 건설사와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관련기사 5·6면

특히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삭발투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선 데다, 30일 진행된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두 번째 협상도 40분 만에 결렬되면서 ‘강 대 강’ 대결 양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주 하루 총 5,000㎢를 생산했던 레미콘의 이번 주 생산량은 0㎢. 원재료인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인해 레미콘 생산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시멘트 원료를 공급하는 BCT(벌크 시멘트트레이러) 차량도 멈춰서면서 광주 북구 유동, 북구 점단지구와 동구 지월동 등 광주 건설 현장 곳곳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정도 중단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겨울철 콘크리트가 굳기 위해서는 여름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한데, 타설 공정이 이뤄지면서 공기에 쫓길 수밖에 없게 됐다”며 “촉박한 공사기한은 부실 공사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나마 현재 창호, 유리, 전기, 배관 등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나 골조 공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 모든 작업이 멈춰 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 이후 만반의 준비를 한 기업들 또한 파업 장기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해지자 현재 공장 내부와 장성·광양 물류센터에 생산된 타이어를 보관하고, 일부는 야적에 들어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파업 이전 천연고무 등 원·부재료 반입 및 타이어 보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등 철저히 대비했다”며 “현재 물류센터 상황 모니터링과 함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소형 트럭을 이용해 소량의 제품 출하를 진행 중이다. 길게 봤을 때 최대 한 달까지는 버틸 수 있도록 준비했으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타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루 2,000여 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달 25일부터 개별 택송을 통해 생산된 차량을 공장 외부로 옮기고 있다. 공장 내에 보관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4,000대에 불과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아는 5,000대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광산구 평동 출하장과 3,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장성 물류센터를 비롯해 개인 물류센터와 제1전투비행단, 함평 나비축제장 주차장 등 추가 적치 공간 확보에도 나섰다.

파업 장기화에 기아 완성차 운송업체인 글로벌비스는 지난달 30일 500~700명 가량의 일당제 운전자를 모집해 완성차 개별 택송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장기화로 지역 건설 및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지

난달 30일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2차 협상도 40분 만에 결렬되면서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구한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으나 기존 입장만 반복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면담에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진정성 있는 협상을 가지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라는 정부의 이야기에 대화를 진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시멘트 외 철강, 정유 등 다른 분야로까지의 운송개시명령을 확대하는 등 압박 수준을 높이고 있어 ‘강 대 강’ 대결 양상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지현 기자

나주·영암 ‘AI 고위험지역’ 지정

도, 전담공무원 투입 방역 강화

선제조치·위험통제·검사 확대

전남도가 최근 전남 지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잇따르자 나주와 영암을 AI 발생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나주와 영암을 AI 발생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위험통제, 가금농장 검사 확대 등 농장 방역수칙 실천력 확보에 중점을 둔 차단방역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나주·영암 고위험지역에는 합동방역

반 4명과 도 농장점검반 10명이 동원돼 특별 점검을 하고, 소독 차량 39대가 배치돼 농장 주변 도로와 진입 도로를 하루 3회 이상 소독한다.

오염원 제거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해 소독차량 160대를 총동원, 농장 주변도로 등을 꼼꼼히 소독하고 가금농장·축산시설도 점검한다. 또 가금농장에 경각심을 갖도록 전담공무원 825명, 생산자단체 및 계열회사업자 방역책임자 등을 동원해 농장주 방역상황을 확인한다.

도는 야생조류 유입이 가장 많아지는 내달 AI 발생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고, 내달 5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전체 가금농장 582곳에 대한 AI 일제 검사를 한다. 1일부터 21일까지는 27일령 이상 오리를 키우는 농장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통상 27일령 이상 되는 오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고 있다.

도는 AI 수평전파(농장 간 이동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서 1km 내 농장들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내 가금농장에서는 올가을 들어 현재까지 나주 3건, 장흥·고흥 각 1건 등 총 5건의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임채민 기자

내일 국회서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육성 토론회

김희재·이용빈·양향자 주최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8기 상생 1호 협력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인 반도체산업

의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육성 국회토론회’를 오는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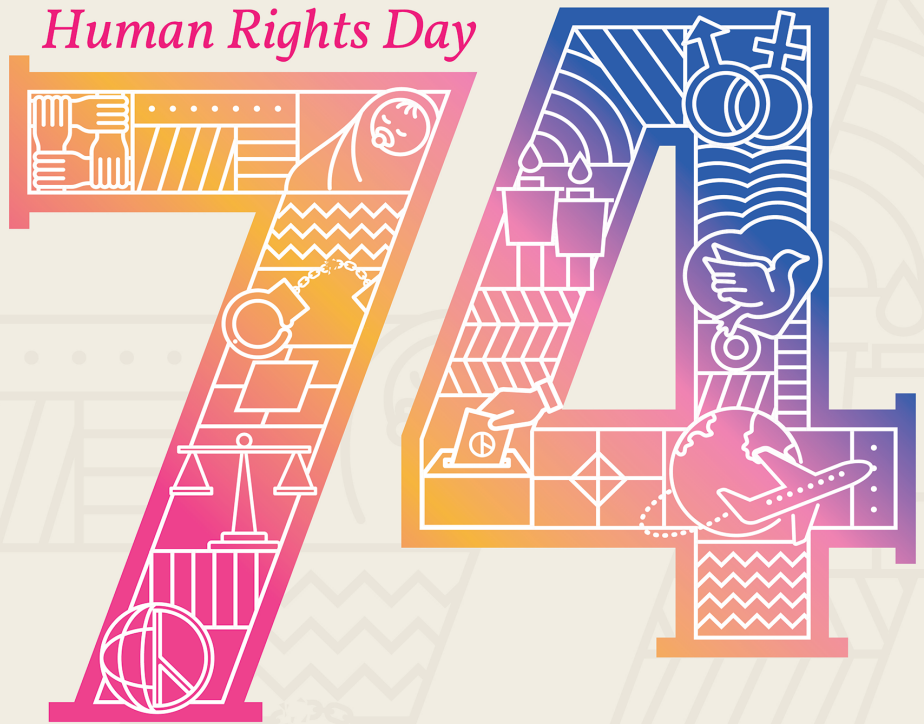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 광주·전남이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김희재·양향자·이용빈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

시·의회, 전남도·의회,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육성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에선 국내외 반도체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광주·전남의 역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연말에 있을 정부의 공모심사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임채민 기자

Human Rights Day



제74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주화

2022. 12. 10. 토

기념주간 행사 안내

01 메인행사

세계인권선언 제74주년 기념 인권단체협력사업 활동공유회

12. 5. 월 14:00~15:30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 광주트라우마센터

02 토론회서트

일하는 청소년

12. 1. 목 14:30~17:10

광주교육지원센터 217호실

광주광역시교육청

03 수상작 전시회

광주광역시 인권작품 공모전

12. 5. 월 ~ 12. 14. 수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04

「전라남도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12. 6. 화 14:00~15:30

전라남도의회 2층 초의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05 민주인권 토론회

학생자치와 인권

12. 7. 수. 14:30~17:00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광주광역시교육청

06 인권영화 상영회

아들의 이름으로

12. 6. 화 19:00~21:00

광주극장

광주광역시

07 인권영화 상영회

니 얼굴

12. 8. 목 19:00~21:00

광주극장

광주광역시

08 인권영화 상영회

김복동 - 감옥과의 대화

12. 9. 금 19:00~22:00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

광주트라우마센터

09 북토크

광주에서 활동가로 살아가기

12. 7. 수 14:00~17:00

동구 인문학당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10

찾아가는 인권 캠페인 1

12. 8. 목 17:00

상무역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11

찾아가는 인권 캠페인 2

12. 9. 금 13:00~16:00

금남로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광주트라우마센터

www.hric.go.kr